

연변취담

류원무
편저

 출판사
조선로동당

연변취담

류원무 편저



북문강
조선민족

출판사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延边趣谈 / 柳元武著. —牡丹江: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6. 9

ISBN 7-5389-1356-4

I. 延... II. 柳... III. 故事—作品集—中国—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7. 8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6) 第 112018 号

书 名/ 延边趣谈

编 著 者/ 柳元武

责任编辑/ 林承焕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咸成镐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印 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开 本/ 850mm×1168mm 1/32

印 张/ 10. 75

字 数/ 290 千字

版 次/ 2006 年 9 月第 1 版

印 次/ 2006 年 9 月第 1 次印刷

印 数/ 1-1 000 册

书 号/ ISBN 7-5389-1356-4/I • 449 (民文)

定 价/ 18. 00 元

머 리 말

산 좋고 물 좋고 땅이 기름진 금수강산 내 고향 연변, 연변은
땀에 절고 눈물에 절고 피에 절고 웃음에 익어 지상낙원으로 되었
습니다. 산이면 산마다 진달래, 마을이면 마을마다에 우뚝 선 혁
명렬사기념비, 우리네 할아버지, 아버지네들이 이 땅을 개척하며
엮은 고담은 얼마, 이 땅을 지키면서 퍼낸 눈물겹고 비장한 미담
은 또 얼마!

필자는 언제부턴가 재미로 읽을수 있고 서로서로 구두로 전
할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 가슴속에 자연스레 아로새겨질 내 고향
연변의 개척사, 투쟁사를 취담으로 엮고싶었습니다. 《연변문사자
료집》을 뒤지며 《중국조선족발자취총서》를 뒤지며 장백산 줄기줄
기 심산벽지도 찾아보고 구름따라 물길따라 두만강 천리연안을
걸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럭저럭 10여년의 시간을 보내며 《연변
취담》을 편찬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174편의 취담과 미담중 태반이 기성자료에서
왔습니다. 취담의 특성을 살리고저 원작을 윤색하기도 하고 간추
려쓰기도 하고 고쳐쓰기도 하였습니다. 원작 작가들의 이해와 량
해를 구합니다.

이 책을 출판해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편집선생님들의 로
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 2월

편저자

차례

- 머리말 / 1
- 지명취담 / 1
- 고향이 그리워 / 1
- 고향을 옮겨온 지명 / 4
- 념원을 기원한 지명 / 5
- 애타게 부른 남편—남평 / 6
- 장목더기 / 8
- 천벌 / 9
- 로과로 된 늑골 / 10
- 땅이 질어서 된 길지 / 11
- 대연늪과 통연늪 / 12
- 차들이 보이지 않는 백석령 / 15
- 석국이 《돌나라》라? / 16
- 《허룡》이 화룡으로 둔갑 / 17
- 화룡전설 / 18
- 명암촌 / 20
- 소를 방목한 골안—대소 / 22
- 사이섬, 간도 / 24
- 개산툰 / 27
- 자동, 제동 / 29
- 동작동, 서작동 / 30
- 중국사령 / 31
- 《이노무데는 달라는것밖에 없구나.》 / 32
- 룡드레마을 룡정 / 35

룡정전설 / 36	
동불사 / 38	
돈화 / 40	
안도 / 41	
웅성라자 / 42	
길이 길할 연길 / 43	
의란구 / 45	
고성, 려성 / 46	
왕청 / 47	
마촌 / 48	
천교령 / 49	
라자구 / 50	
곡수 / 51	
망해탑 / 52	
어우벌 / 53	
도문 / 54	
거북바위전설 / 55	
비파동 / 57	
훈춘 / 58	
훈춘하 / 59	
별등 / 60	
회룡봉 / 61	
노름산, 룡산호 / 62	
기묘한 권하 / 63	
수리봉 / 65	
장고봉 / 66	
방천 / 68	
훈춘의 만족어지명 / 69	
백두산 / 70	

천지 / 71
 두만강 수계 / 72
 두만강 제1경 적봉발원지 / 74
 두만강 제2경 군함산 / 78
 두만강 제3경 호곡령 / 81
 두만강 제4경 선경대 / 84
 두만강 제5경 두만강의 야광주 / 87
 두만강 제6경 일광산 / 89
 두만강 제7경 경신 / 91
 두만강 제8경 방천 / 93

생활취담 / 95
 하늘아래 첫 동네 / 95
 광주리로 물을 길어먹다 / 97
 장도깨비 / 98
 봉금령 / 100
 토자패 / 101
 산 토자패 / 103
 동포대 서포대 / 105
 룡호석비 / 107
 치발역복 / 109
 연변황소 / 111
 제동마을 축구대회 / 113
 룡바위 / 115
 과심령의 원한 / 117
 소가죽 한장 / 119
 《영국더기》 / 122
 일송정 / 124
 사과배 / 126

연변의 로마 / 128	
훈춘벌의 북거도인수로 / 130	
경상도 농악마을 / 133	
충천도마을 / 136	
강덕황제의 어량전 / 138	
포수와 개 / 140	
《전대만 떼놓고 가거라!》 / 141	
《호박골》 / 142	
80만원바위 / 144	
《백두산호랑이》 / 145	
미인송 / 146	
《오만고 사시오.》 / 147	
《마다매, 배씨바.》 / 149	
《불끝이 제일 강하구나.》 / 150	
뼈조지 / 151	
개조지 / 153	
일장 폭소 / 155	
《에굼마, 이걸 어째?》 / 156	
《처녀》를 빌려달라 / 158	
《수이러우》아줌마 / 160	
《아바이, 정부 어디 있슴둥?》 / 162	
신혼부부 단칸방 / 163	
《엄마 때리지 마!》 / 164	
《밤이 익었어요.》 / 165	
《안손치기왕》 / 166	
국경 첫돌에 드린 거래의 선물 / 168	
주총리의 친필싸인 / 170	
터지지 않은 폭탄 / 172	
로박사 일화 / 173	

빛 좋은 개살구 / 176
밤중에 울린 소방울소리 / 178
《인민공사가 좋다.》 / 179
연변에 오신 주총리 / 181
코신부대 / 183
《바지벗개》 / 185
물의 장난 / 187
어처구니없지 / 189
《아!— 동방홍...》 / 191
산에 묻어둔 저금통장 / 193
네 것이냐 내 것이냐? / 195
양광평 제방뚝다리 / 198
복받은 마을 / 200
룽정사람 / 202
연길사람 / 203
왕청사람 / 205
훈춘사람 / 206
항일미담 / 207
연변에서의 첫 신식학교—서전서숙 / 207
반일민족교육의 선봉—명동학교 / 209
교기, 모표, 교가 / 211
교과서의 빛발 / 213
첫자잡기 유희 / 215
단지동맹 / 216
《3.13》의 종소리 / 217
투사일가 / 220
봉오동승전 / 224
청산리대첩 / 227

《1.23》반일시위 / 233
《5.30》폭동 / 235
약수동쏘베트정부 / 237
《추수》투쟁 / 238
《춘황》투쟁 / 240
뜨개보에 갇든 혁명의 녀 / 242
《베감투》와 《호미장수》 / 245
《연길작탄》 / 247
강도의 끝장 / 249
소년영웅 김중만 / 251
지혜롭게 지주무장을 탈취 / 253
어랑촌 13용사 / 255
백주에 자위단을 들부시다 / 258
소왕청보위전 / 260
《13련발》 / 262
포연속에서 맺어진 정의 / 263
경찰을 감화시킨 리심순 / 265
삼림대를 쟁취 / 268
라자구공격전 / 270
《근거지의 어머니》 / 272
백마, 만년필 / 275
경도선열차 습격전 / 279
연길감옥 파옥기 / 281
《토벌대》로 가장하고 지주를 기습 / 286
신혼 첫날밤 / 288
불굴의 투사 / 291
백두의 불사조 / 293
장백의 푸른 소나무 / 296
일흔일곱번 그은 금 / 300

일본밀정을 역리용 /	302
천보산골짜기에 메아리친 총성 /	305
장백산을 주름잡은 《호랑이부대》 /	307
일군 소장 마쯔시마의 끝장 /	310
울기강전투 /	312
녀기관총수 허성숙 /	314
《조막도끼령감》 /	317
경박영웅 /	319
교묘한 작전술 /	321
박락권 /	323
겨레의 큰 별 주덕해 /	327

지명취담

고향이 그리워

120년전에 우리네 할아버지들이 두만강을 건너고 오랑캐령(남강산줄기)을 넘어선 그 땅이란 과연 어떠하였을까? 선조의 성지라고 청나라황실에 의하여 2백여년 봉금(封禁)되었은 연변땅은 산에는 원시림이 하늘을 가리고 들판에는 버들숲, 갈대숲이 무성한 황폐한 땅이었다. 여름이면 사득판에서 흐르는 시뻘건 물이 부글부글 피고 겨울이면 휘몰아치는 눈보라에 참나무가 짹짹 얼어터지는 험한 고장이었다. 그러한 땅에 범, 송냥이가 득실거리고 인피를 쓴 화적이 날치였다.

살길을 찾아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일가친척 다 버리고 낯선 땅에 들어선 우리네 할아버지들은 고향이 그림기만 하였다. 타향살이설움에 울고 고향이 그리워 울었다. 울면서도 서너집, 일여덟집 물이 맑은 샘물을 찾아 마을을 샅하고 서로간에 상부상조하며 모진 목숨을 이어가며 황무지를 일구었다. 꿈에도 그려보는 고향, 고향의 체취, 고향의 온기를 느껴보고저 우선 마을이름을 조선식으로 지었다. 라남이요, 경성이요, 어랑촌이요 하고 고향이름을 그대로 옮겨오기도 하고 마을이라는 뜻으로 고향에 서처럼 리(里)자를 달아 고성리요, 토성리요, 청산리요, 하기도 하고 동(洞)자를 달아 약수동이요, 봉암동이요, 신선동이요 라고 하였다. 골짜기가 좀 깊으면 안개골이요, 피나무골이요, 소골이요 하면서 한족들의 골짜기 구(沟)자를 따르지 않았다. 또 벌이 어지간히 넓으면 중평이요, 십리평이요, 룡수평이요, 구룡평이요

하고 마을이름을 평(坪)자를 붙여지었다. 그리고는 머루, 다래, 고사리, 인삼이 나는 아름다운 산을 두고는 시루봉이요, 배개봉이요, 수리봉이요, 장고봉이요 하고 우리네 형상사유대로 지형지모에 따라 이름을 지었다. 고향과 같이 정다운 마을이름들, 특히 동(洞)자와 평(坪)자가 달린 마을이름은 넓으나 넓은 중국땅에서 오로지 연변땅에 있을뿐이다. 서쪽으로 안도현 하발령을 넘고 북으로 왕청현 로송령을 넘으면 이런 지명들이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마을들이 툰(屯)이나 촌이나 보(堡)로 불리우고있다.

연변대학 심혜숙교수의 저서 《중국조선족 취락지명과 인구분포》에는 조선족마을지명이 708개 올라있는데 그중에는 팔가자(八家子), 개산툰(开山屯), 동불사(铜佛寺) 등 한어지명도 있고 마적달(马滴达), 합달문(哈达门), 밀강(密江) 등 만족어지명도 많지만 태반은 순 조선말지명이다. 그중 동자가 달린 지명이 183개, 평자가 달린 지명이 64개, 골자가 달린 지명이 26개, 도합 273개로서 총지명의 3분의 1이 넘는다.

물은 생명수이고 농업의 명맥이다. 자고로 벼농사를 즐겨온 우리네 할아버지들은 그 물을 떠날수 없어 마을이름을 강, 하, 천, 수, 계(溪), 호, 포(浦)자를 달아지었고 그래서 생긴 이름이 룡강동(龙江洞)이요, 하전(河田)이요, 조양천(朝阳川)이요, 한수평(汉水坪)이요, 계동(溪洞)이요, 청호촌(清湖村)이요, 삼포동(三浦洞) 등인바 연변지역에 물을 따라 지은 마을이름이 도합 48개이다.

이밖에도 연변지명에서 흥미있는것은 룡자가 달린 지명들이다. 룡은 위엄과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물의 상징이기도 하다. 한족지명에는 룡자가 든것이 별로 없지만 물을 좋아하는 우리네 마을이름에는 룡자가 달린 지명이 적지 않다. 특히 연변땅을 살찌워주고있는 해란강량안에 룡자가 달린 마을이름이 많다. 룡정, 화룡 두 시의 소재지이름을 내놓고도 룡수평이요, 룡포요, 룡원이요, 와룡이요, 룡연이요 모두 55개나 된다.

이외에도 방천이요, 남석이요, 벌등이요, 천벌이요, 새솔이요, 하는 등 순 조선말지명이 수두룩하다.

실로 김치, 깍두기, 된장처럼 내음이 물씬물씬 풍기는 차붓하고 정이 붙는 지명들이다. 고향이 아니더라도 고향의 정취가 진하게 풍기는 지명들이다. 《고향이 따로 있는가, 정이 들면 고향이지.》우리네 할아버지들은 중국땅에다 후손들의 고향을 개척하였다.

버드나무는 그 어디서나 자란다. 산에서도 자라고 골짜기에서도 자라고 들에서도 자라고 진펄에서도 자라고 설산, 초지, 사막에서도 자란다. 뿌리를 깊이 박고 가지를 무성히 뻗으며 버들방천-버드나무숲을 이룬다. 200만 조선족이야말로 다른 수목에 잡히지 않는 버드나무족속이다.

고향을 옮겨온 지명

그때 사람들은 떠나는것이 슬프고 리별이 슬픈것이 제일 큰 한이었다. 고향을 등진 죄책감, 고향을 등진 한을 풀어보려고 이 역땅에 들어앉은 마을에 고향이름을 옮겨다 붙이기도 하였다.

소사하의 무주(茂朱屯- 전라북도 무주군)

석정향의 하중(下鍾- 함경북도 종성군)

랑변향의 라남(羅南- 함경북도 라남)

광개향의 종성촌(오늘의 행화촌)

광신향의 회령툰(오늘의 부암툰)

조양향의 함흥툰(오늘의 신흥평)

월청향의 경선리(오늘의 립신)

광신향의 명천촌(오늘의 송정)

용화향의 무산동(오늘의 봉화동)

라자구의 한국툰(오늘의 중화)

서성향의 갑산

훈춘시 반석진의 길성(吉城)마을은 두 곳 지명이 어울려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곳 주민들은 본시 함경북도 길주(吉州)와 성진(城津-오늘의 김책시)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고향땅이 그리워 자기들이 이주하여 이룬 새마을 이름을 두 고향땅이름에서 첫자를 따서 <길성>이라 하였다.

넘원을 기원한 지명

고향을 등지고 두만강을 건너선 우리네 할아버지들의 삶은 고달팠다. 그 고달픔속에서 허덕허덕 살아가면서도 아름다운 행복을 얻으려고 모지라진 꿩이로 화전을 일구고 사득판에 논을 풀며 복이 마을에 내려달라고 마을이름들을 곱게 지었다.

태평동(太平洞), 자미동(自味洞), 장복동(长福洞), 복만동(福满洞), 장만동(长满洞), 신흥동(新兴洞), 만흥촌(满兴村), 동흥촌(东兴村), 대흥동(大兴洞), 장흥동(长兴洞), 부흥동(富兴洞), 장풍동(长丰洞), 장성촌(长盛村), 영풍동(永丰洞), 부민동(富民洞), 창흥, 명신, 복흥, 도흥, 동광촌, 인화동, 영창동... 연변 각지에 널려있는 꿈을 가꾼 지명들, 우리네 할아버지들의 인고의 락관정신이 눈물겹다.

애타게 부른 남편-남평

남평(南坪)은 화룡시 덕화진소재지이다. 두만강을 끼고 개바닥에 앉은 남평은 300여호 인가가 모여사는 자그마한 진이다. 천리 두만강연안에서 세번째 향진소재지이고 승선통상구 다음의 두번째 두만강통상구이다.

지금의 남평지명은 강건너에서 애타게 부르던 《남편》이 번져서 남평이 되었다.

개척초기 굶주림에 시달리던 조선의 농사꾼들은 땅이 비옥한 강건너로 건너다니며 주로 낚농사질을 했었다. 어느해 여름 인가 장마가 저서 두만강물이 불어 낚농사질을 건너왔던 남정들이 며칠을 두고 건너가지 못했었다. 어마어마한 물을 사이에 두고 저편에서는 이쪽을 걱정하고 이쪽에서는 저편을 넘려하여 서로 강역에 나서서 부르며 찾았단다.

《여복소, 우리 남편이 편안합꾸마?》

강건너에서 애틡게 안부를 물으면

《우리 로덕두 편안한가?》

하고 이쪽에서도 속을 태웠단다.

부르고 찾고 찾고 대답하고 그렇게 반복하는중에 그것이 마을이름으로 지어져 강건너는 《로덕》이요, 강 이편은 《남평》이 됐단다.

남평 지명 유래에는 또 비법월경의 수난을 두고 지어졌다는 일설도 있다. 월경죄로 잡히기만 하면 목이 달아나던 때였다. 리조봉건학정에 반기를 들었던 한 민란두목이 판군에게 쫓겨 두만강변으로 안해와 함께 도망쳐왔다. 남편은 다행히 강을 건넜으나 안해는 치마폭이 물결에 휘감겨서 건너지 못하고 포교들에게